

역사·문화·예술의 축소판... 자부심을 모으다

우표를 사랑하는 사람들 '광주 우취회'

한국 국제우표 심사위원 8명 중 3명 배출 막강 파워 매월 부부동반 정기모임...11월 창립 40돌 기념준비



우취인들의 잔치인 '2008 남도우표문화제'가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홍보관(옛 전남도의회)에서 열렸다.

20여년 전만해도 우표 수집이 유행이었다.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기념우표가 발행될 때면 우체국 앞에 미리 줄을 서는 장사진이 연출되곤 했다. 마치 지난 해 새 돈을 사겠다고 한국은행 앞에서 밤새 기다리던 행렬은 꼭 20여년 전 우체국 앞 풍경이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우표 수집 취미는 시들해졌다.

하지만 예전만큼 인기를 끌지 못할 뿐 우표 수집가는 여전히 살아 있다. 우편통신판매 회원만 3만여 명이다. 온라인상에 동호회를 만들어 정보를 나누고 오프라인 모임도 한다. 오프라인 동호회만도 전국적으로 80개 이른다. 그 중 대표적 동호회가 40년 전통의 '광주우취회'다.

광주우취회는 1968년 11월 16일 지역의 젊은 우표수집가 32명이 모여 창립했다. 한 때 400~500명에 달하는 회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학생우취회를 산하 조직으로 거느리는 등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다.

"1970년대 통행금지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새 우표가 발행되는 날이면 통금이 끝나는 새벽 4시만 되면 어디서 물러왔는지 광주우체국 앞

은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우다방에서 총파(총장 로파출소)까지 줄이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광주우취회 김창한 (52·광주 보성북차 유통업) 회장의 30여년 전 회상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표를 모으기 시작해 어느덧 40년을 훌쩍 넘겼다. 김 회장은 "우표 수집은 역사의 흔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취미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우취회는 40년의 역사가 증명하듯 우리나라에 8명 밖에 없는 국제심사위원(FIP)중 3명(장세영 나주병원장, 이순규 서남대 교수, 김창한 회장)이 소속돼 있는 잘 나가는 동호회다. 이들을 포함해 국내 심사위원도 2명(김재성 치과의원장, 김기열 광주우편취급국장) 더 있다.

이들은 우표 수집으로 일가를 이룬 베테랑들이다. 1971년 초등학교 4학년때 친구의 우표함에 감탄해 우표 수집을 시작했다는 김기열(48)씨는 "가지고 있는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제를 분명히 부각시킬 수 있는 우표를 모아야 한다"며 "소인이 찍힌 우표는 해마다 변하는 물

가를 알 수 있는 자료이고, 우표를 통해 당시의 생활상은 물론 역사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서의 가치도 있다"고 말했다.

우표 수집가는 영어로 필라텔리스트(philatelist)다. 1861년 11월 엠 헬팩이라는 프랑스 우표수집가가 그리스어로 사랑이라는 뜻의 필로(philos)와 요금을 지불했다는 의미의 아텔로스(atelos)를 합쳐 필라텔리(philately)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뒤 세계 용어가 됐다. 우표는 그 나라의 자연과 역사·사회·문화 등을 표현하는 축소 예술의 꽃이다. 우표수집을 취미로 하면 역사적 안목과 문화적 지식, 예술적 감각을 모두 높일 수 있다. 잘 정리된 우표수집첩을 가리켜 '지식과 상식의 보석함'이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표수집이 최고의 취미로 꼽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우표수집은 자연·동물·꽃·나비·문화·음악·스포츠 등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를 정하여 테마별로 수집하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 깊게 연구하고 공부해야 하며 그렇게 테마를 가지고 우표수집이 이뤄지면 그 자체

가 우표작품이 되고 이러한 작품은 역사와 문화, 예술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뛰어난 자료가 된다.

국내 우표 심사위원인 김재성(김재성치과의원장) 씨는 "우표가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인 것처럼 우표를 쌓아두어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며 "진정한 우취는 그 우표들을 정리하고 작품으로 구성하면서 우표의 가치와 우취의 깊은 맛과 멋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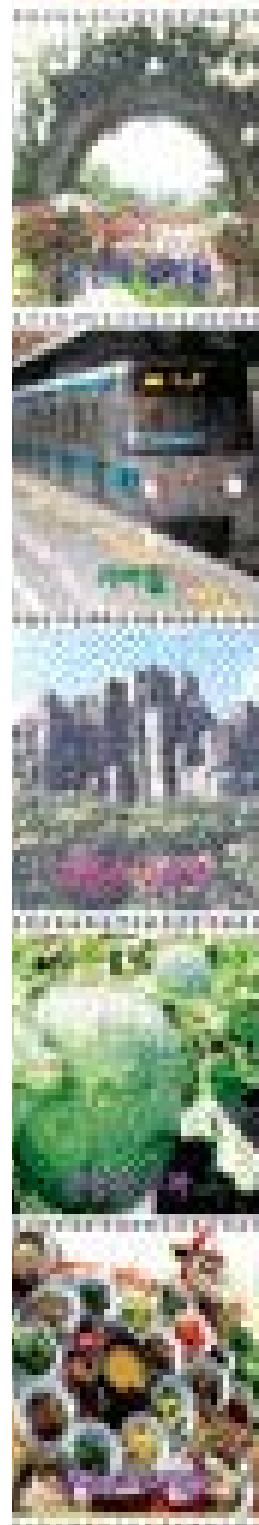
광주우취회 회원들은 매월 둘째주 토요일 시내 카페에서 정기모임을 갖는다. 20여 명 정도가 모여 우취 정보를 교환하고 회원 확보 등 회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르 나눈다. 친목 도모를 위해 이 모임은 부부동반을 지향하고 있다. 회원들은 오는 11월 창립 40주년 기념 전시회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창립 전시회에는 서울·부산 등 전국에서 우취인들이 몰려온다.

김 회장은 "우표 수집은 지식·정보를 얻고 예술적 심미안을 기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면서 "이밖에 정서함양은 물론 정리하는 습관과 표현·발표력을 키워줘 청소년 취미 활동에 최고다"며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세상에 하나뿐인 우표 고객맞춤형 우표 인기



개인의 특별한 추억을 위한 우표가 있다. '나만의 우표'다. 우표 옆에 일정한 여백을 만들어 고객이 원하는 내용물을 넣어 주는 고객 맞춤형 우표다.

2001년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자 아이돌·결혼·회갑 등 뜻깊은 날을 기념하는 사진을 넣어달라는 가족 주문에서부터, 군대 간 남자친구에게 보내려고 하니 세시한 사진을 넣어 만들어달라는 주문에 이르기까지, 슬한 사연들이 우체국에 쏟아졌다.

나만의 우표라고 하니까 본인 또는 가족 사진만 떠올리기 쉽지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초상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장면, 어떤 인물, 어떤 이미지여도 무방하다.

나만의 우표의 최고 히트작은 배운 사진 담은 나만의 우표. 한류열풍에 착안해 만든 이 우표는 전량 일본으로 수출돼 15억원의 국고수입을 올려주기도 했다.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종종 나만의 우표를 주문 제작해 사용한다. 지난해 10월 광주시 동구청은 중앙로축제를 홍보하기 위해 로고를 넣은 우표를 제작했고, 지난 20일 광주우체국도 '2008 남도우표문화제'를 알리기 위해 광주 동구의 명소를 담아 나만의 우표를 발행했다.

나만의 우표 형태는 크게 4가지로 회사 이미지 홍보·안내장 발송·상품 홍보 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데 활용할 수 있는 기본형과 알뜰함이 있으며, 창사기념일·행사기념일·동호회 행사기념일 등을 위해 중앙에 대형이미지가 있는 홍보형과 아이돌·회갑 등 가족기념일, 졸업·입학 등 학교행사, 친구나 연인을 위한 시트형이 있다. 주문을 원하는 사람은 우표에 담고 싶은 사진 등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7월18일까지 나만의 우표 새 디자인 신청고객에게 초일봉투 2장을 제공하며, 새롭게 선보이는 시트형은 11장 이상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나만의 우표 보관용 액자 1개를 무료로 준다. /*박정욱기자 jwpark@



재미나는 우표이야기



◇국내 최초 우표=1884년 11월 18일 흥영식이 중심이 돼 설치한 우정총국에서 발행한 '문위우표(文位郵票)'다. 문위우표란 당시 화폐단위가 '문(文)'이어서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한민국 정부 이름의 첫 우표는 1948년 8월1일에 발행된 '대한민국우표'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우표=1856년 영국의 식민지 가이아나에서 발행한 마젠타 우표로 추정가가 무려 36억원이며 현재 오직 1장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918년 제작과정의 착오로 우표속 비행기 디자인이 거꾸로 인쇄된 미국의 인버티드 켄우표는 2005년 10월 4개짜리 한 묶음이 27억3천만원에 팔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우표=구한말 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문위우표'로 1장에 900만원이다.
◇황당한 우표들=1920년 서인도 제도의 세인트 키츠네비스에서 발행한 우표.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

버스가 산타마리아호 선상에서 망원경으로 신대륙을 바라보는 장면을 담은 이 우표는 큰 오류를 담고 발행했다. 1446년에 태어나 1506년에 죽은 콜럼버스가 100년 후인 1608년에 발행된 망원경을 들고 있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계 우정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직 우정장관 우표'도 있다. 1860년 캐나다 동남부 뉴브런즈윅 주정부가 발행한 이 우표는 디자인이 결정되지 않아 당시 우정장

관이던 찰스 코넬이 "내 얼굴이라도 넣어라"며 만들어진 것.
2005년 2월 발행한 인간복제 배아줄기세포 배양 성공 특별우표는 성공하게 발행했다가 후회한 사례다. 당시에는 황우석 박사의 기념비적 업적을 기린다고 했으나 훗날 논문조작 사실이 밝혀지면서 망신스러운 우표가 됐다.
◇개성만점 우표들=개성시대에 맞춰 사각형 옷을 벗고 삼각형, 동그라미 등 다양한 뜻으로 같이 입고

있다. 1965년 제10회 체신의 날 기념우표와 2002년 세계우표전시회 기념우표가 마름모 형태로 나왔으며 2003년 전통생활문화 특별우표는 팔각형이었다. 또 동그란 우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기념, 2007년 5월 어린이 현장 선포 50주년 기념우표로 두차례 선보였다. 지난해 8월에는 우표 취미 주간 특별우표로 삼각형 우표가 등장했으며 올해 3월에는 아프리카 대초원 특별우표가 부채형 스티커 모양으로 발행했다.

Advertisement for SUPERPAGE featuring various services and products. Includes text like '한국전회서비스부를 만나는 다양한 방법' and '맛있으면'.